

인생을 바꾼 만남



OhmyNews

유성애 기자



경기 안산 곳곳에 만들어졌던 장례식장

어떤 만남은 인생을 바꾼다

출근길이면 꼭 지나는 버스정류장이 있다. 코로나 뒤 재택이 잦아져 회사 출근이 많지는 않다. 주 1회나 될까, 파란색 버스 안에서 선 채로 차장 밖으로 보이는 그 정류장을 지나칠 때면 종종 11년 전 거기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던 내가 보인다. 2013년 5월 언론사 최종 면접 뒤 복잡하게 떨리던 마음, 그날 눈앞에 마주 보이던 낯선 풍경과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한다. 내 곁에는 같이 면접을 본 친구가 있었다. 나는 붙었고 친구는 떨어졌다. 운이 좋았던 걸까, 나뻐던 걸까.

입사 채 1년이 안 된 2014년 4월, 사회부 기자로 세월호 참사 현장에 투입됐다. 처음엔 경기 안산으로, 다음에는 전남 진도체육관으로. 취재도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 장례식장과 단원고등학교로 들어가 '뭐라도 들어내야' 하는 상황이 고역이었다. 300명 넘는 학생들 이름과 함께 '구조현황' 표가 나붙었다. 처음엔 실종자로 표기되던 학생들 이름은 점차 희생자로 바뀌었다. 안산 부근의 거의 모든 장례식장이 총동원됐다.

'기레기'라는 단어가 아직은 없던 때였다. 실종학생의 가족들, 살아 돌아온 생존학생과 그 부모, 학교와 병원 관계자

들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다. 아마도 살아서 처음 목격하는 대규모 인명 참사 현장 앞에서, 당사자들만큼이나 기자와 PD, 사진과 영상 촬영기자 등 언론(관계자들)도 당황했던 게 분명하다. 체계는 없었고 현장은 어수선했다. 유가족과 생존자들 앞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물어야 할 것과 묻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기만 했다.

생각해보면 그 시기 진도체육관 현장은 참 야만적이었다. 아직은 실종 상태였던 단원고 학생들의 형제, 부모와 친척들이 1층 체육관 바닥에서 이불을 깔고는 한 데 모여 잠을 잤다. 카메라와 기자들은 그보다 위인, 체육관을 둥그렇게 둘러싼 관중석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며 표정을 살펴 스케치하고, 취재하고, 기록했다. 사

생활이란 게 애초에 존재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가족들 얼굴 표정도, 정부 구조 브리핑도 실시간으로 활자화됐다.

돌아오면

수학여행을 떠난 고등학교 학생들이 속속 사망한 채 시신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어느 날. 뭐라도 해야 한다는 정체불명의 압박에 시달리던 어느 날. 초짜 중의 초짜로 현장에 가 있던 나는 큰 용기를 내어 아주 조심스럽게,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오던 한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다. 어려우시겠지만 혹시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는냐고, 정말 조심해서 옮기겠다고, 곤란한 듯 어색한 듯 살짝 웃으며 대답하던



목포 팽목항 앞에 만들어졌던 식탁. 희생자들을 위한 기도문과 함께 먹거리가 올려져있는 풍경
'오직 나를 위로하려 그대들을 위로한다는 포장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부디 다음 세상에는 여기보다 더 안전한 곳에서 행복하게 사시다가 떠나시길 이렇게 염두에 둥니다.'

그의 표정이 어렴풋이 기억난다.

“우리 딸 돌아오면, 딸만 돌아오면 그때 이야기할게요”

선한 인상이었던 그는 선한 인상이라서 더 기억에 남았다. 어디에서나 마주칠 법한 평범한 40대 가장의 얼굴이었다. 민망해진 나도 웃었던가, 알겠다고 하고 다음을 기약했던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는 점차 기억에서 지워져갔다.

이후엔 몇 달 간, 진도체육관과 팽목항(현, 진도항)을 매일 오갔다. 팽목항 현장 옆에 안치소가 생겼다. 그렇게 숨진 채로 발견된 단원고 희생학생들이 총

250명. 형제자매를 빼고 2명씩 부모만 셈해도 유가족이 최소 500명, 일반인 희생자까지 합친 총 304명으로 치면 최소한으로 따져도 유족만 무려 608명인 셈이었다.

생각해 보면 그 유가족들이 대부분 비슷한 인상이었다. 평소 거리에서 길을 걷다 스칠 법한 얼굴들이고 실제 스쳐 지나갔어도 모를 법한 사람들이었다. 당시엔 부모들 얼굴을 자주 보다보니, 묘하게 부모와 닮은 희생 학생들 이름과 사진을 볼 때마다 부모들 얼굴이 저절로 떠오르곤 했다. 세월호 참사를 제대로 조사해 달라며 거리로 나섰던 학생들 부모, 그들이 목에 걸고 나온 아이들 학생증 사진, 광화



2014년 당시 전남 진도 체육관 안 배치도.



참사 며칠 뒤인 2014년 5월19일 경기 안산 광장에 모인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의 추모제 모습

문 세월호 광장을 지날 때마다 본 영정 덕분에였다.

그 뒤 생존 학생들의 도보행진과 유족 어머니들의 삭발시위, 부모들 단식투쟁 등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자주 생각하곤 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안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기자와 취재원 관계가 아니었다면, 이 일이 아예 벌어지지 않았다면, 학

생들이 그 배에 타지 않았다면, 얼마나...

학생 한 명 한 명이 남기고 간 자기 방과 물건들을 〈아이들의 방〉이라는 기록으로 남겼을 때, 아이들이 커서 되고 싶어 했었던 꿈과 좋아했던 일들을 듣고 기사로 옮길 때마다 영영 사라져버린 가능성에 대해 자주 상상했다. 그러는 사이 캄캄한 물 속, 답답해 숨 막혀하는 류의 악

몽을 두세 번 껴던 것도 같다.

3년 1개월

딸만 돌아오면 이야기하겠다던 선한 인상의 그는 딸을 만나기까지 3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친구들이 모두 돌아오고도,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9명 명단에

‘허다운’이라는 그의 딸 이름이 들어있었다. 취재진과 봉사단, 정부공무원 등 많은 이들이 진도 현장을 떠난 뒤에도 그는 오래 그 곳에 남아 딸을 기다렸다. 2017년 5월, 그러니까 3년 1개월, 참사가 난 지 1127일이 지나서야 딸의 유해 일부를 찾을 수 있었다.

선한 인상의 그는 단원고 2학년 2반,



2017년 11월14일, 참사 3년 뒤 전남 목포 신항만에 인양돼있던 당시 세월호 모습

아빠 껌딱지면서 애교가 많았하던 허다운 양의 아버지 허홍환 씨였다. 미수습자 명단 중 허다운이라는 이름과 아빠를 닮은 눈매를 볼 때마다 그 선한 얼굴이 생각나 마음이 무거워졌다. 기도하는 마음이 됐다. 그러는 사이 시간이 흘러 나는 정치부와 탐사보도부, 편집부로 차례차례 부서를 옮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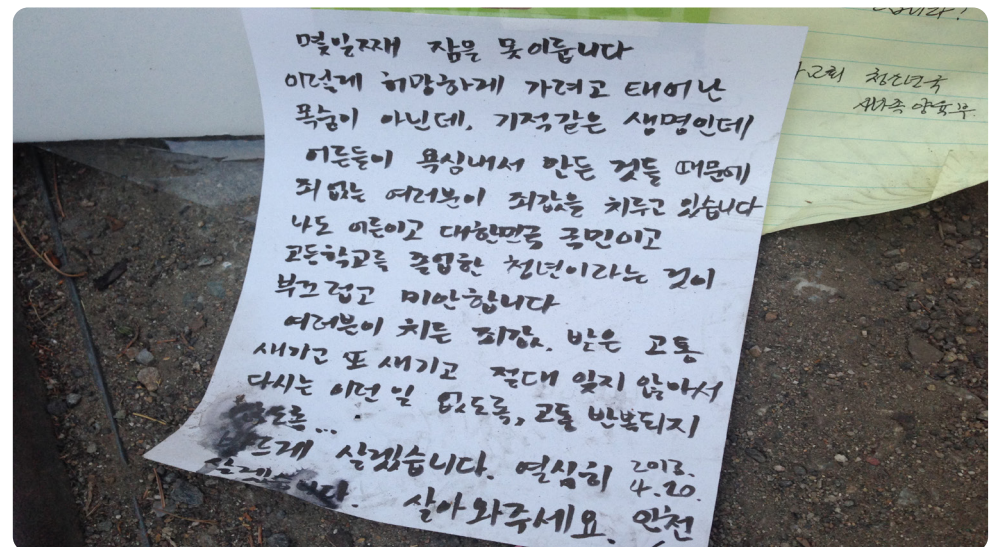
딸만 돌아오면 해준다면 이야기는 들을 기회를 찾지 못했다. 기사화될 수가 없었다. 그는 나를 만났던 그 일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지 모른다.

어떤 만남은 인생을 바꾼다. 어떤 사건은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내겐 세월호가 그렇다. 종종 생각한다. 기자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면접에서 떨어졌더라면. 이 언론사가 아니었다면

면. 사회부가 아니었다면. 그날 배가 출항하지 않았다면.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무력함 속에서도 그런 상상을 한다.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를 바꿨다. 한국 언론에 있어서도 시스템을 바꾼 뼈아픈 수술이 아니었나 싶다. 익명 뒤에 숨어 참사 피해자들을 비난 하는 행태는 여전하지만, 이태원 참사 때는 적어도 포털과 언론사가 협업해 악플을 막을 수 있었다. 무분별한 취재경쟁보다는 유가족 측의 초상권이 우선시됐다. 취재진 트라우마를 돌보는 심리 치료도 가능해지는 환경을 보며 이제 다 세월호가 아프게 남겨준 교훈이었구나 싶었다.

기자란 직업은 그 업무 특성상 억울한 사람, 고통 받는 이들을 가까이서 지켜

2014년 4월23일 경기 안산 단원고 앞에 붙여있던 추모메시지
'이렇게 허망하게 가려고 태어난 목숨이 아닌데...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어른이라는 게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볼 수밖에 없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약자가 처했을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활자와 영상으로 옮기다보면 거기에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사건 발생 뒤 속보 경쟁에 내몰리는 상황이라면, 304명이 사라진 뒤에도 데스크들의 비인간적 취재 지시가 여전하다면, 기자들에게 ‘기레기’ 오명을 달아준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직, 있다

“친구들은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 축 처진 어깨를 하고 교실에 있을까 / 따뜻한 집으로 나 대신 돌아가줘 /

돌아가는 길에 하늘만 한 번 봐줘

손 흔드는 내가 보이니 웃고 있는 내가 보이니 / 나는 영원의 날개를 달고 노란 나비가 되었어

다시 봄이 오기 전 약속 하나만 해주겠니 / 친구야, 무너지지 말고 살아내, 주렴”

세월호가, 학생들이 생각날 때면 가수 루시드폴의 ‘아직, 있다’는 노래를 반복해서 듣는다. 세월호를 둘러싼 만남들이 남기고 간 흔적들을 생각한다. 세월호를 기억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지를 숙고해본다. 4월이 다 가고 ‘꽃은 지고 사라져도’ 희생자들은 내 안에, 우리 곁에 ‘아직, 있다’.

버스 정류장 안에 선 내 가방에는 여전히 노란 리본이 달랑거리고 있다. ♡

오마이뉴스 유성애 기자